

흩어진 지원사업·행사 공고를 매일 읽고 골라 주는 '사업기회 레이더'

헬스케어 IT 기업의 해외사업 담당자가 AI 코딩 도구(Claude Code)로 직접 만들어 평일마다 운영합니다. 개발자가 아니어서 코드·AI·사람이 맡을 몫부터 나눴습니다.

2,313건

7일 동안 살펴본 공고
(중복 제외)

2,006 → 27건

10.16 실행 한 번에 모은
공고와 거른 뒤 남은 공고

57건

시가 판정한 공고
(사람이 고친 판정 4건)

9건

해마다 열리는 큰 사업을
'기다리는 공고'로 등록

1 문제: 볼 시간이 없어 놓치던 공고

전

- 지원사업·행사 공고가 여러 사이트에 따로 올라옵니다.
- 업력·지역·대상 같은 자격을 공고마다 원문을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병원 사업과 함께 하다 보니 거의 보지 못했고, 큰 사업은 공고 시기를 놓치기 쉬웠습니다.

후

- 평일 아침마다 자동으로 모으고, 자격이 안 되는 공고는 미리 뺍니다.
- 남은 공고는 시가 등급과 별점을 매깁니다.
- 알릴 것이 있을 때만 슬랙 메시지 한 통이 옵니다. 사람은 결정만 합니다.

2 업무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맡을 주체를 정했습니다

프로그램

1단계

찾기

공공 공고 시스템
3곳의 연결(API)로
매일 새 공고를
가져옵니다.

프로그램

2단계

거르기

업력·지역·대상
규칙으로 신청할 수
없는 공고를 뺍니다.
사업 분야별 단어로
점수를 매깁니다.

AI

3단계

판단

판정 기준서를 읽고
추천·검토·참고·패스와
별점 다섯 항목,
장단점을 씁니다.

프로그램

4단계

기다리기

해마다 같은 때 열리는
큰 사업을 '기다리는
공고'로 등록해 두고,
열리면 알립니다.

사람

5단계

결정

메시지를 보고 낼지
정합니다. 사람의
판정은 시가 덮어쓰지
못합니다.

■ 규칙으로 되는 일은 코드 ■ 읽고 판단할 일은 AI ■ 책임질 결정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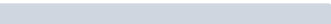
3 어떻게 만들었나

만든 것	내용
수집	K-Startup, 기업마당 지원사업, 기업마당 행사 3곳의 공고 연결(API). 한 번 본 공고는 기억해 두고 새 공고만 판정에 넘깁니다.
사업 분야 렌즈	해외사업, 병원 사업, 국내 헬스케어 앱, 마케팅·행사, AI 도입의 5개 분야마다 찾을 단어와 가점 단어를 정했습니다. 회사의 업력·지역·대상 조건으로 자격을 거릅니다.
판정 기준서	등급 4개(추천·검토·참고·패스)와 별점 기준 5개(자격·효과·부담·시가·전략)를 적은 문서입니다. 돈·시간·사람까지 따지는 현실성 점수를 거치고, 추천은 하루 3건까지만 둡니다.
자동 실행·알림	평일 08:40 예약 실행. 새 공고만 AI에 넘기고, 알릴 것이 없으면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4 운영 결과

항목	수치
운영	2026.10.7부터 7일 실행, 평일 아침 자동
살펴본 공고	2,313건 (중복 제외)
거르기 (10.16 실행)	2,006건 → 27건 (분야 단어·자격 조건)
AI 판정 누적	57건: 참고 13, 패스 44 사람이 고친 판정 4건
사람에게 간 메시지	6회 (알릴 것이 있는 날만)
기다리는 공고	9건 등록
사람의 일	전: 공고를 거의 못 봄 → 후: 아침 메시지 확인과 결정만

사업기회 레이터 · 평일 아침 메시지 (형식 예시)

[참고]  참가기업 모집 · 마감 
별점 ★3.4 (자격 4 · 효과 3 · 부담 3 · 시기 4 · 전략 3)
장점: 
단점: 
🔔 기다리는 공고:  — 열림
회사 내부 판단과 공고별 결정 내용은 가렸습니다.

아직 바로 낼 만한 공고(추천)는 없었습니다. 지금 열린 공고 중에는 맞는 큰 사업이 없어서, 큰 사업은 '기다리는 공고'로 열릴 때를 기다립니다. 판정 결과가 '없음'이어도 매일 확인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5 같은 틀을 다른 일에 다시 썼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바꿨나
AI 도구 혜택 레이터	보는 곳만 바뀌 같은 2단계 구조(모으기 → AI 판정)로 AI 도구의 무료 혜택과 크레딧을 찾습니다. 25곳을 보고, 첫 이틀 동안 13건을 판정했습니다(2026.10.15~).
다른 회사 담당자용 지시문	회사 정보, 사업 분야, 사이트 이용 번호(API 키)를 빈칸으로 둔 만들기 지시문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AI 코딩 도구에 붙여 넣으면 같은 레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반복 업무	같은 방식으로 광고 매출·회원 지표 수집, 업무 글 정리, 앱 출시 점검 등 반복 업무 6가지를 더 자동화했습니다. 이 레이터를 포함한 7종이 2026.10.7~17에 67회 실행됐습니다.

6 조직의 AI 전환에 가져갈 것

- 1 사람의 판단 기준을 먼저 글로 씁니다. AI는 기준서가 분명할 때 같은 품질로 판단합니다. 기준서를 고치면 다음 날 판정이 바로 바뀝니다.
- 2 코드·AI·사람의 몫을 단계마다 나눕니다. 규칙으로 되는 일까지 AI에 맡기면 비용과 오류가 늘고, 결정까지 맡기면 책임이 흐려집니다.
- 3 사람이 고친 판정을 쌓아 기준을 키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서는 없습니다. 정정 한 건이 기준 한 줄이 됩니다.